

메타버스 점포서 대출상담하고, 적금 만드니... MZ '노크'

은행권, 메타버스 서비스 강화
미래 주고객층인 MZ세대 타깃

IBK기업은행, 싸이월드와 컬래버
'IBK도토리은행' 열고 금융상품
신한은행, 영업점처럼 상담 추진도

주요 은행이 메타버스를 통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과 협업해 금융상품과 메타버스 지점 등을 선보이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8일 싸이월드 제트와의 제휴를 통해 싸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에 'IBK도토리은행'을 오픈했다.

'IBK 도토리 은행'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방문해 기업은행의 개인상품 및 서비스 체험이 가능한 은행권 최초 메타버스 플랫폼 영업점이다. 도토리 구매건수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하는 'IBK 도토리 은행' 등 유저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내년 3월 자체적인



은행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 하고 있다.

/각사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협은행의 모바일플랫폼인 '올원뱅크'와 연동해 금융상품 가입부터 꽃, 선물, 기프트쇼 구매 등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낚시와 농사, 집입자 물리치기 등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 얻은 보상을 가상금융센터인 메타버스 지점에 예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IT스타트업과의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메타버스 영업점에서 일반 영업점처럼 예·적금 가입, 가상투자, 대

출 등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에 KB금융타운을 개설해 소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메타버스지점 도입을 위한 VR(가상현실)브랜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에 가상·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라는 접두어를

결합한 합성어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현실과 뒤섞인 디지털로 구현된 가상세계를 말한다.

은행권에서 메타버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래 주 고객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메타버스 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를 통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전달, 점포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 가능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영업의 축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통한 비대면 영업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소통 및 홍보, 직원 교육, 고객 서비스 용도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 메타버스를 통해 대출, 투자 등 다양한 서비스도 출시돼 은행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메타버스 점포가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메타버스 금융 생태계가 본격화하려면 가상공간 내 개인 정보보호 문제, 금융상품 판매 범위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MZ세대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노력층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보험도 메타버스에 '쭈욱' 각양각색 마케팅 '눈길'

DB손보,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보장 상담·안전 이벤트 등 진행
주요 보험사들 활용 영역 확대
직원 시상식·보고회 등 가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임직원들이 메타버스 안에 모여 '흥국 히어로즈' 론칭쇼에 참여하고 있다.

보험업계에도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다. 국내 주요 보험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보험 상담 서비스와 고객 소통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국내 주요 보험사 중 가장 활발하게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DB손보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통해 보장분석 결과에 대한 무료 라이브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메타버스를 통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대면 상담처럼 자세한 상담을 지원한 것이다.

이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협업해 가상공간에서 캠핑 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미 캠핑 월드'도 선보였다. 캠핑을 소재로 삼아 MZ세대들에게 자유롭게 안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장을 지원했다. '프로미 캠핑 월드'와 '프로미타운' 등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에는 '메타버스에 조인(JOIN)해 보세요'라는 행사도 가졌다.

DB손보 관계자는 "MZ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도 임직원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행사를 진행했다. 흥국금융계열사의 공식 캐릭터인 '흥국 히어로즈' 론칭쇼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흥국생명은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 기

반의 금융상담과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 서비스 등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NH농협생명과NH농협손보도 각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시상식, 소비자 패널 결과보고회 등을 진행하며 메타버스에 뛰어 들었다.

NH농협생명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상반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시상식을 시작으로 향후 회이나 재택근무 시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NH농협손보도 소비자패널 결과보고회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계의 잠재 고객인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속속 메타버스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향후 메타버스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 경쟁을 본격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명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로 볼 때 국내 보험회사도 스타트업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보장과 제공하는 헬스케어 앱의 업그레이드나 보험상품과 연계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

E이로운 세상을 G그리다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이
세상을 응원하는 방법**

조금 달라진 세상,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내일을 향한 발걸음에
BNK부산은행이 먼저 찾아가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구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일에 앞장서며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